

# 가상공간에서의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의 형성

사회자본 개념요소로서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을 중심으로\*

김동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본 연구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의 참여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와 시민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토론과정에서 겪는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했다.

실험 결과는 우선,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의 형성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경험은 이들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고양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론과정에서 획득된 시민적 태도는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부분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인간 신뢰보다는 호혜성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자본과 개념적으로 상당부분 호환이 되는 시민적 태도가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통해서 형성되고 확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나아가 이는 커뮤니케이션 결사체(연계망)으로서 정치적 토론의 장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하는 시민적 태도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채널로서의 기능할 수 있음을 낙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주제어: 정치토론, 사회자본, 시민적 태도, 의견불일치, 대인간(사회적) 신뢰, 호혜성, 시민참여

---

---

\* 이 글은 저자의 2007학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dongkim@yonsei.ac.kr

## 1. 문제의 제기

공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정치적 토론의 속의 민주주의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경험주의적 접근방식을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김유경, 2001; 박승관, 2000; Kim, Wyatt & Katz, 1999; Price, Cappella & Nir, 2000; Wyatt, Katz & Kim, 2000; Wyatt, Kim & Katz, 2000)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속의 연구가 다분히 참여자들의 인지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온 반면, 속의 효과의 또 다른 한 차원으로서 태도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김유경, 2001; 박승관, 2000; Price & Neijens, 1997)는 지적도 제기되어왔다. 최근 들어,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태도 차원의 효과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고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과의 관련성(Price & Cappella, 2002; Price, Goldthwaite & Cappella, 2002)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에 이루어진 경험주의적 속의 연구관행 속에서 사회자본 개념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혹은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호혜성(reciprocity), 그리고 시민적 관여(civic engagement) 등과 같이 태도나 감정, 그리고 행동 차원을 아우르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념적 요소로 구체화되고 있다(Brehm & Rahn, 1997; McLeod, Scheufele & Moy, 1999; Shah, Kwak & Holbert, 2001; Uslander, 2000;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요소는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적이고 참여적 시민의 자질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 혹은 시민적 정신(civic-mindedness)이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분야에서 사회자본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정치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발전해 온 것도 시민적 자질로서의 사회자본 개념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 속의 연구 전통에서 정치적 토론과 토론 참여자들의 사회자본 형성 사이의 관계를 타진한 예는 그리 많지 않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는 이러한 사회자본이 온라인상의 공적 토론에의 참여를 통해서 고양될 수 있음(한혜경, 2004; Price & Cappella, 2002; Price et al., 2002)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하는 공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숙의적 행위에서의 참여와 그에 따른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경험주의적 논거들은 선행 속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진 태도차원의 숙의 효과 연구를 위한 이론적 시발점이 되고 있다. 반면, 낮은 사회적 실재감과 맥락에 관한 정보, 그리고 부족한 사회적 단서에 의존하는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매개된 환경하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그 속에 배태된 제대로 된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을 획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Putnam, 2000)도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익명성과 비대면적 의사소통에 기반한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토론이 시민적 태도의 고양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적 이슈나 쟁점에 대한 정치적 토론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의 질을 높여주고,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야기되는 불일치와 그에 따른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나 ‘침묵의 와선(spiral of silence)’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규범적 압력(social-normative pressures)은 오히려 토론자들의 정치적 불신과 냉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토론자들 사이의 의견불일치 경험이 더 많이 발견되는 가상공간에서의 정치토론은 그들 사이의 대인간 신뢰나 호혜성과 같은 시민적 태도는 물론 그들의 시민적 관여와 같은 행동적 차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Price & Cappella, 2002)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토론 참여자들이 공적 토론에의 참여과정에서 담화 대상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들을 신뢰할 것인지, 혹은 그들과 연대하고 협동할 것인지 하는 시민적 태도는 사회적 진공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

토론과정에서 교환되는 의견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추론은 익명적이고 비대면성에 기반하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정치적 토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견일치보다는 불일치를 증폭시키는 주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토론과정의 참여와 그에 따른 효과의 한 차원으로서 시민적 태도는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의견불일치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상공간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 여부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영향이 토론과정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 효과의 산물로서 시민적 태도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인지적 차원의 효과 이외에 시민적 태도라고 하는 태도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인터넷 가상공간의 속의 민주주의적 공론장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논의

### 1) 시민적 태도: 정치적 속의 효과의 한 차원

사회자본은 그 개념적 실체가 모호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개념이다. 어떤 경우에 사회자본은 동료들 간의 사회적 관계나 연결망 위(혹은 그 속)에 배태된 사회적(대인간) 신뢰와 같은 심리적인 현상을 지칭한다. 또 다른 경우에 사회자본은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의식과 같은 사회성(sociability)이나 결사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시민적 관여(civic engage-

ment)와 같은 정치문화(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6; 장용호·김영주, 2004)를 일컫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그 적용범위나 분석의 수준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개념화될 수 있기 때문에(Jackman & Miller, 1998), 향후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실체를 규정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후기 구조주의자 부르디외(Bourdieu, 1986)와 사회학자 콜만(Coleman, 1990)에 의해 사회자본 개념이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이 경험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학자 퍼트남(Putnam, 1995a, 1995b)에 의해서부터다. 퍼트남(1995a)은 사회자본을 “참여자들을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신뢰,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적 특질”(pp.664~665)로 규정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목적의 달성이나 협동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는 일종의 공공선(the public good)으로 작용하는 매우 기능적인 것으로 파악한다(Newton, 1997). 이러한 공공선은 공동체 상호간의 신뢰, 관용, 협조능력과 같은 요소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시민성의 한 차원으로 이해되며, 사회자본이 종종 시민적 자질(한혜경, 2004)이나 시민적 태도(박승관 2000)라는 용어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한다. 그런데, 퍼트남(1995a)은 1990년대 초반 발견된 미국 사회의 정치적 참여 하락의 원인을 바로 이러한 사회자본의 하락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적 질병의 원인으로서는 사회자본의 감소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텔레비전 시청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라는 이른바 ‘텔레비전 주범론(television accomplice)’을 주창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시민적 태도로서 사회자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회자본의 기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량과 사회자본 사이의 부적 상관관계를 발견한 퍼트남(1995a)의 ‘텔레비전 주범론’은 사회자본의 기원이 사람들 사이의 접촉과 만남이라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사회자본 감소를 초래한 주요한 혐의를 지고 있는 텔레비전 시청량의 증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인간 만남이나 접촉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방해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구조 속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고서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효율적인 기제인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 형성기회를 빼앗아가버리는 부정적인 결과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화는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화 요소는 결사체(연계망), 신뢰와 호혜성(규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나 효용성라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유재원, 2000; 이준웅 외, 2006). 이러한 개념화 방식은 결사체(associations)에의 참여가 신뢰와 호혜성이라고 하는 규범을 형성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이러한 결사체 참여의 산물로서의 규범적 가치는 다시 사람들을 시민적 관여 혹은 참여의 장으로 이끄는 주요한 기제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결사체는 이러한 결사체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규범의 결과물로서의 시민참여나 시민적 관여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즉, 결사체는 어떤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민참여나 시민적 관여와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접촉, 그리고 모임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이에 대한 개념화 방식은 이를 연구하는 분야나 연구자,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치적 연구영역에서 사회적 결속력과 통합을 강조하는 기제로서 사회자본 개념은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 가운데, 대인간 신뢰는 가장 자주,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이다. 브렘과 란(Brehm & Rahn, 1997)은 사회자본을 시민적 관여, 대인간 신뢰, 그리고 정부에 대한 확신으로 파악했다. 팩스톤(Paxton, 2002)도 신뢰와 연계망이라는 개념으로 양분한 뒤, 신뢰를 다시 대인간 신뢰와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였다. 또한 카펠라(Cappella, 2001)는 사회자본을 ‘사람들과 시민들과 제도 사이의 연결’을 포착하는 압축적인 용어라고 전제한 다음, 이를 사회적 신뢰, 제도적 신뢰, 미디어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스라너(Uslander, 2000)도 사회자본을 신뢰와 사회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과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 샤 등(Shah et al., 2001)은 사회자본을 시민적 관여와 대인간 신뢰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에 따라 대인간 신뢰라는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설문문항에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신뢰한다’, ‘공정하다’와 같은 비교적 단순하고 평이한 측정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자본 개념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상호호혜성은 공동체 성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McLeod et al., 1999). 선행 연구에서 상호 호혜성 개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연결망 혹은 네트워크를 측정하면서 이를 측정하는 설문문항을 호혜성의 직접적인 측정문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호혜성 없이는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웰만 등(Wellman et al., 2001)은 호혜성이라는 개념 대신 연결망 자본(network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측정은 동료의식, 감정적 지지, 재화와 용역의 교환, 정보제공, 소속감을 묻고 있다. 또한 장용호와 김영주(2004)는 기존 오프라인상에서 논의되어온 사회자본을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연결망, 규범, 신뢰, 사회적 교환방식, 공동체 재화, 사회적 대행자 등의 6가지로 세분화한 다음, 이 가운데 연결망의 속성을 유대감, 책임감, 친밀감, 지속력, 결속력과 같은 호혜성 요소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는 연결망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원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구조 속에 공유되고 있는 상호호혜성이라는 연결망의 질적인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

인터넷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공적 숙의에의 참여 경험이 숙의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은 온라인 숙의(online deliberation)와 시민성의 계발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프라이스와 카펠라(Price

& Cappella, 2002)의 실험연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 중 한 가지가 바로 온라인 숙의에의 참여가 사람들의 사회적 신뢰나 호혜성과 같은 시민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즉,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이 전자적 연대감이나 유대감을 넘어선 공동체에의 관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프라이스와 카펠라(2002)의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정치토론, 공동체 참여, 그리고 사회적 신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 비하여 온라인 토론에 더 자주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온라인 토론에의 참여가 공동체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이들은 높은 수준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 이용은 이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토론에의 참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온라인 토론에의 참여가 다른 시민에 대한 태도, 정치적 행위에 관여될 의지, 혹은 시민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에의 활동에의 참여와 같은 시민적 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적 대화 프로젝트(Electronic Dialogue Project)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사람들이나 공동체 생활에 더 많이 관여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정치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혜경(2004)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시민적 자질과 가상공간의 공적 숙의 경험과의 관계를 이론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민적 자질이라는 태도 차원의 시민성이 가상공간의 공적 숙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율성, 공동체 의식, 관용, 신뢰 등 네 가지의 개념 요소들을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시민적 자질이면서 동시에 공적 숙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시민적 자질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시민적 자질과 가상공간에서의 숙의 경험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상공간에서의 숙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자율성, 공동체 의식, 관용의 수준이 높으며, 이 세 가지의 자질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그리고 자율성, 공동체 의식, 관용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상공간에서의 숙의를 통해 의견 강화를 더 자주 경험한 반면, 의견 생성과 의견 강화는 이 세 가지 자질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가상공간에서의 정치토론의 효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온라인상의 토론 참여가 비록 익명적이고 비대면적인, 그래서 낮은 사회적 실재감과 부족한 사회적 단서로 인하여 토론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의견에 대한 맥락 정보가 결여된 제한적인 의사소통만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도 토론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으로 충만한 시민성을 촉발시키는 주요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추론에 기반하여, 본 연구도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 사이에 예상되는 관계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로 구체화하였다.

연구문제 1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의 참여는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2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하는 호혜성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다.

### 3) 의견불일치와 시민적 태도와의 관계

선행 속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사회자본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연구설계에 도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 Cappella, 2002; Price et al., 2002)이 수행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이전의 속의 연구가 주로 사용해온 서베이 연구에서 과감하게 탈피, 실험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신뢰와 시민적 관여로 일컬어지는 시민성에 미치는 온라인 속의 독립적인 영향을 분석해냄으로써 그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이 양자 사이의 인과성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프라이스와 동료들의 이러한 연구성과가 공적 토론에의 참여가 사람들의 시민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밝히는 데는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공적 토론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선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실제의 토론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상대방과 공유하는 사회적 관계가 유의미한 것인지, 그러한 사회적 관계구조에 속한 성원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토론주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생활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토론에의 참여나 횡수보다는 그들이 제공하는 의견이나 입장, 혹은 주장의 내용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토론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에서 토론의 양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둘 경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쪽 면만을 보게 될 우려가 있다.

프라이스와 그의 동료들 역시도 온라인 토론과 그에 따른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가 그들의 연구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공적 이슈에 대한 정치토론 과정에서 야기되는 다수의 횡포나 침묵의 와선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규범적 압력은 오히려 토론자들의 정치적 관여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사회적 신뢰나 시민적 관여를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토론이라는 행위에의 참여와 참여량 이외에 토론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교환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이 참여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시민적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야기되는 의견의 차이가 특수한 국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적 대화나 토론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토론과정에서 야기되는 의견의 불일치와 그에 따른 토론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향후 속의 연구의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가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추론할 만한 경험적인 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탈개인화(social identity of deindividuation) 모델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이론적 가정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하는 인터넷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대부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이 만약 그들과 다르거나 반대되거나 이질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탈개인화 모델과 집단극화 이론은 그들 사이에 발견되는 그러한 개인차나 정체성의 차이를 극복하거나, 수렴하며, 나아가 좁히려는 성향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김은미·김현주, 2004; Lee, 2006a, 2006b; Postmes, Spears & Lea, 1998; Wood & Smith, 2001)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이다. 이 두 이론적 가정에 따르면, 가상공간 내 익명적·비대면적 정치 토론이라는 과정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의견이나 주장의 접촉은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혐의나 의미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단순히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과 유사한 기존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토대로 평가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집단극화는 어떤 쟁점이나 사안에 대하여 비슷한 입장이나 태도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고립된 속의(enclave deliberation) 과정

에서 보다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unstein, 2000, 2002a, 2002b). 그것은 고립된 숙의의 경험이 토론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주제나 이슈와 관련한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토론 상대방이나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어떤 사회정치적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하여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야기되는 불일치된 의견은 그들로 하여금 토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립된 숙의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나 외집단의 입장이나 관점이 가지는 장점이나 의미는 간과되기 쉬운 반면, 자신을 비롯한 내집단에 동조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견지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인간 토론과 견주어볼 때, 상호작용 당사자 간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게 되는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탈개인화는 물론 집단극화가 야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조건과 환경을 경험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이나 외집단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나 내집단의 주장이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왜곡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게 하는 위험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은 토론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 상대방과의 신뢰나 호혜의 규범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러한 추론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2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은 그들의 시민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의견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2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의견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토론 상대방과 공유한 호혜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 4)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와의 관계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부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가상공간 내 한 정치적 의사소통 행위와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그러한 매개된 정치적 의사소통 행위를 통하여 형성된 시민적 태도가 사람들의 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론하도록 해주는 간접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빔버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Bimber, 1998; Katz & Apsden, 1997; Jones, 1995)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이 지식을 증가시키고 대인간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조정과 협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전제조건인 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웰만과 그 동료들(Wellman et al., 2001)의 연구는 인터넷의 이용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형성이나 재건과 같은 보다 집단적 수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이러한 시민적 태도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인터넷이 그 중이용자들로 하여금 대인간 오프라인 만남과 접촉, 조직적 참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아가 열려 있는 민주주의적인 담론을 증진시키고(Sproull & Kiesler, 1991), 다양한 관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Kapor, 1993), 그리고 집단적 행동에 동원(Tarrow, 1999; Schwartz, 1996)함으로써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을 고취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런가 하면 몇몇의 연구자들(Kraut, Mukhopadhyay, Szczypula, Kiesler & Scherlis, 1998; Nie & Erbring, 2000; Stroll, 1995; Turkle, 1998)은 인터넷의 이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고, 유대감을 약화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의 공동체적 관여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단순히 기분전환을 위한 장소 정도로만 활용하게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들은 인터넷이 비록 개방성과 탈중심성에 기반한 무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면대면 대화나 토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등하며, 따라서 이러한 제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하여금 ‘전자적 공동체(electronic community)’에의 참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다. 앤드슨과 트레이시(Anderson & Tracy, 2001)도 인터넷이 본질적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덜 집중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실제 사회적 삶에 소홀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나이와 색맨(Nie & Sackman, 1970) 등도 인터넷의 이용이 텔레비전과 비슷한 수준의 흡입력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관여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의 이용과 그 산물로서의 시민적 태도가 사람들의 시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이상의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사이의 부적인 관계를 발견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관계가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동기나 이용패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크라우트나 동료들(Kraut et al., 1998)은 인터넷이 사람들을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를 그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공동체적 삶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전환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으며, 그 이외의 논의들(Anderson & Tracy, 2001; Nie & Sackman, 1970) 역시도 인터넷의 강한 흡입력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삶과의 단절시키는 기제가 작동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떨어 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이 만약 공동체적 삶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용을 통하여 형성된 시민적 태도는 그들을 공동체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만약 사람들이 인터넷을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교환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교환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시민적 태도는 그들의 공동체 관여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나아가 사람들이 만약 인터넷을 사회정치적 현안으로 부상한 공적 쟁점에 대한 토론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토론의 과정에의 참여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의 관여와 참여의 장으로 초대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하스와 동료들(Haase et al., 2002)의 연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 Site)이라는 사이버 공동체에의 참여가 사람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메일이나 게시판 활동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행위가 사람들의 오프라인상에서의 면대면 관계를 보완해줌으로써 사회적 만남이나 접촉을 통하여 획득되는 연결망 자본, 자원적 결사체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는 시민적 참여, 그리고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과 같은 시민적 태도로서의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정치적 관여도가 비교적 낮은 젊은층에서도 유효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터넷의 이용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인터넷 이용과 관련성이 있기보다는 그러한 인터넷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인터넷의 이용동기와 그에 따른 효과의 중요성은 정치적 토론의 산물로서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을 모색한 바 있는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 Cappella 2002; Price et al., 2002)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즉, 온라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가나 기분전환이라는 욕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목적지향적인 동기에 기반한 것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만약 인터넷을 오락이나 여가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신, 공동체와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이용이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동체적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제안하였다.

연구문제 3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고양된 시민적 태도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참여 의향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가설 3-1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하고 있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2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하고 있는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변인인 대인간 신뢰, 호혜성, 시민참여 의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대인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는 특정한 연결망(결사체) 속에 포함된 어떤 사회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는 믿음 내지는 신뢰를 일컫는다. 다음으로, 호혜성(reciprocity)이란 특정한 연결망(결사체) 속에 포함된 어떤 사회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정서적 혹은 감정적 지지를 일컫는 용어이다. 한편, 시민참여란 정치적 투표행위, 선거유세 활동, 선출된 공무원들과의 접촉, 선거 정당 활동, 정치캠페인에의 참여와 같은 비교적 공식적이고 제도화된 참여행위를 아우르는 정치참여와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참여는 자생적 단체에의 가입이나 공동체 수준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공공모임이나 가두시위 및 집회, 그리고 서명활동, 미디어나 전자게시판에 글쓰기, 시민단체에의 가입 등과 같은 다소간 덜 공식



적이고 덜 제도화된 참여행위를 일컫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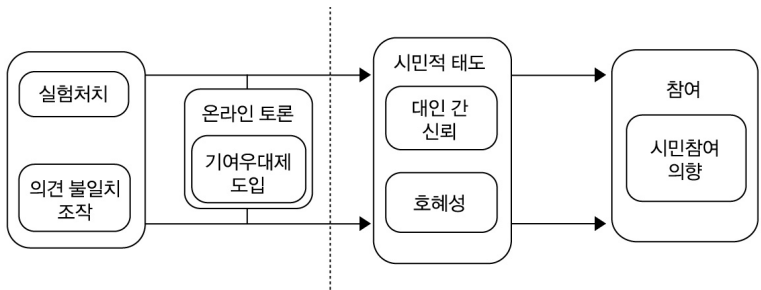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개념적 요소로서의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을 시민적 태도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민적 태도가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시민적 태도가 토론과정에서 야기되는 의견불일치 경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견불일치 조건을 달리하는 실험 처치를 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 1) 연구가설의 흐름도 및 실험설계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가설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상의 연구가설 흐름도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들은 실험처치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실험처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배치하였다.



<그림 1> 본 연구가설의 흐름도

&lt;표 1&gt; 실험집단별 인구사회학적 구성

사례 수(%)

구 분		실험집단(A)	실험집단(B)	실험집단(C)	통제집단(D)	합 계
사전 조사	남학생	80 (70.2)	51 (58.7)	73 (66.4)	70 (64.2)	274 (65.2)
	여학생	34 (29.8)	36 (41.3)	37 (33.6)	39 (35.8)	146 (34.8)
	합 계	114 (100.0)	87 (100.0)	110 (100.0)	109 (100.0)	420 (100.0)
사후 조사	남학생	80 (70.2)	51 (59.3)	70 (66.0)	68 (63.6)	274 (65.1)
	여학생	34 (29.8)	35 (41.7)	36 (34.0)	39 (36.4)	146 (34.9)
	합 계	114 (100.0)	86 (100.0)	106 (100.0)	107 (100.0)	413 (100.0)

실험처치 조건별 실험 참여자들의 인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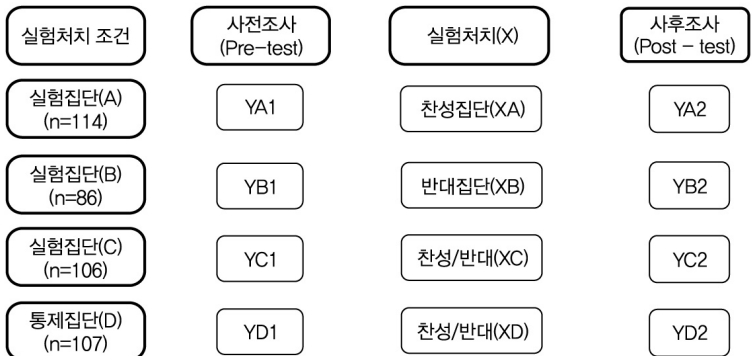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실험 참여자의 수는 총 833명(사전조사 420명, 사후조사 413명)이다. 이들 실험 참여자들은 네 개의 서로 다른 실험처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노출되었다. 이들 참여자들을 실험집단에 배치하는 데 있어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러한 의견의 강도이다. 사전조사 결과, 실험 참여자들의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대략 6:4 정도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비율을 네 개의 실험처치 조건에 반영하여 실험집단의 크기를 정했다. 개별 실험집단의 크기가 실험처치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도 실험 참여자들을 그들의 사전 의견과 의견의 강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할당한 데에 따른 결과이다. 일반적인 실험연구에서 실험 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 전공 등의 변인을 토대로 실험집단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실험 참여자들의 의견 및 의견의 강도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의 모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 사이의 관계가 토론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험집단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각 대학의 모집단위가 이미 광역화되어 이미 학과 개념이 사라진 대신, 각 대학의 구성원들이 계열별로 모집되어 어떠한 전공과목을 수강했느냐 하는 것은 실험 참여자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의 전공의 차이에 따른 가외변인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 참여자들의 절대 다수는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논리성이나 의견의 수준은 전공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그림 1>의 연구가설 흐름도에 제시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요구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실험설계 방안을 채택했으며, 다음 <그림 2>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집단(A)’는 사전조사에서 ‘기여우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실험집단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이라는



<그림 2> 사전사후통제집단 실험설계 방안

실험처치가 가해진 반면, ‘실험집단(B)’는 ‘기여우대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실험집단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이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졌다. 이에 비하여, ‘실험집단(C)’는 ‘기여우대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절반씩 골고루 섞인 실험집단 내에서의 정치적 토론’이라는 실험처치를 가하였다. 외형적인 실험처치 조건은 다르지만,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는 의견불일치 경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동일한 실험처치 조작을 가한 집단이고, ‘실험집단(C)’는 의견불일치 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실험처치 조작이 가해졌다. 한편, ‘통제집단(D)’는 인적 구성 차원에서는 ‘실험집단(C)’와 어떠한 차이도 없다. 그러나 통제집단은 실험집단과 달리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기여우대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일기형식으로 정리하는 이른바 내적 대화나 사고의 기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적 대화나 사고에는 기여우대제 도입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이나 신문구독,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개인 수준의 정보추구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토론기간 동안에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그들의 의견은 보고서 형식으로 A4 용지 2매 분량으로 사이버 강의실 내 토론방에 올리도록 하였다.

## 2) 실험절차 및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은 ○○대학교 학부대학에 개설된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토론은 강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교 사이버교육센터(Cyber Education Center)가 강의의 보조적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이버 강의실 내에 마련된 토론방에서 ‘기여우대제 도입’이라는 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방에 참여하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졌다.

토론이 이루어진 기간은 총 15일 동안이었으며, 420명의 실험 참여자들은 토론을 전후로 하여 실시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참여하였다. 토론기간 동안에 토론 참여가 특정한 시기에 쏠림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들에게 요구한 의무참여 횟수를 네

개의 시기로 구분, 이들 시기별로 10회씩의 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네 개의 실험처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배치된 실험 참여자들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토론방에 로그인 하여 대화나 토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없도록 기계적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험 참여자들이 토론 상대방을 식별할 수 없도록 자신만의 아이디나 별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토론이라는 실험처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토론에의 참여가 성적평가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토론 내용이나 질은 성적평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개인별로 할당된 의무참여 횟수(40회 이상)만 충족되면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 3) 주요 개념의 측정

여기서는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측정도구가 무엇이며, 이들 측정척도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측정 척도들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가설 검증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1) 시민적 태도의 척도와 측정

시민적 태도의 개념적 구성요소로서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은 ‘시민적 정신’(박승관, 2000) 혹은 ‘시민적 자질’(한혜경, 2004)과 거의 개념적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우선, 대인간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커뮤니케이션학적 사회자본 연구(이준웅 외, 2005; 장용호·김영주, 2004; Brehm & Rahn, 1997; Paxton, 1997; Price & Cappella, 2002)에 기반하여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대인간 신뢰는 “기여우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귀하가 앞으로(혹은 지난) 15일 동안 토론을 하게 될(혹은 된) 동료나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이들 설문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된 7점의 폐쇄형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문문의 내용은 ‘그들은 믿을 만하다’, ‘그들은 공정하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이다’, ‘그들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든다’, ‘그들에게 의심이 간다’, ‘그들은 이기적이다’ 등 7개의 문항이다. 대인간 신뢰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진술문에서 사용된 부정문에 대한 응답은 실제의 분석에서 긍정문에 대한 응답으로 리코딩하여 분석했다. 사전, 사후조사에서의 이들 7개의 측정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685와 .70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후의 통계분석 과정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호혜성은 선행 사회자본 연구(장용호·김영주, 2004; McLeod et al., 1999; Wellman et al., 2001)에서 사용되어 온 측정도구들에 기반하여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호혜성은 ‘기여우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귀하가 앞으로(혹은 지난) 15일 동안 토론을 하게 될(혹은 된) 동료나 친구들에 대한 느낌이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그들과 나는 결속되어 있다’, ‘그들과 나는 친밀하다’, ‘그들에게서 유대를 느낀다’, ‘그들과 나는 동료의식을 공유한다’, ‘그들과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 ‘그들과 나는 동질적이다’, ‘그들에게서 감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등이다. 이들 측정문항들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된 7점의 폐쇄형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문항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의 내적 일치도는 .896와 .90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 시민참여 의향의 척도와 측정

연구 흐름도에서 제시된 시민참여 의향은 그동안 정치참여를 다루는 다양한 논의(강내원, 2004; 이준웅 외, 2005; Kim et al., 1999; McLeod et al., 1999; Putnam, 1995, 1993; Verba & Nie, 1997)에서 사용되어온 참여의 다양한 유형들 가운데, 다소간 비공식적이고 덜 제도화된 참여행위를 시민참여로 개념화했다. 구체적으로, ‘만약 기여우대제 도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대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이 있다면, 여기서 서명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기여우대제 도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집회에 참여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기여우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내에서 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린다면, 그러한 행사를 참관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는 만약 기여우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면, 투표에 참여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귀하는 만약 기여우대제 도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단체나 모임을 결성한다면, 여기에 가입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 식당에서 식사 중 같은 테이블에서 학생들 간에 기여우대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면,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여우대제 도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스티커나 배지를 여러분의 가방에 부착할 것을 권유받는다면, 이를 부착할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등 7개이다. 이들 설문문항들에 대한 사전, 사후조사의 내적 일치도는 .845와 .84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 기타 변인의 측정

이상에서 설명한 주요한 변인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실험 참여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비롯한 다양한 변인들을 설문문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실험 참여자들의 평상시 사회적 신뢰(general trust) 이외에 그들의 일일 평균 ‘신문 구독량’, ‘텔레비전 시청량’, ‘인터넷 이용량’을 비롯하여 그들이 자주 보는 ‘신문 세션’, ‘텔레비전 장르’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통하여 실제의 토론에서 실험 참여자들의 ‘게시글 수’, ‘머리글 수’, ‘덧글 수’, ‘글 쓴 양’(문자수), ‘글 읽은 횟수’, ‘동질적 의견 교환’, ‘이질적 의견 교환’ 등의 토론 참여양식을 정량 분석하였다.<sup>1)</sup> 여기서 측정된 미디어 이용행

1) 여기서 ‘게시글’과 ‘머리글’, 그리고 ‘덧글의 수’는 토론방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측의 협조를 구하여 제공받은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된 것이며, ‘글 쓴 횟수’와 ‘글 읽은 횟수’는 토론방에 대한 관리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매뉴얼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글 쓴 양’은 토론방 시스템 관리자 측으로부터 실험 참여자 305명에 대한 개인별 토론 메시지 내용을 담은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엑셀 문서로 전환, 이를 다시 공백을 제외한 문자수로 계산하여 코딩하였다. 실험처치 조건(의견불일치)별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불일치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

태나 토론 참여양식과 관련한 변인들은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처치에 따른 토론의 효과에 개입하는 가외변인이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실제 연구가설의 검증과정에서 투입한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 (4) 의견불일치의 조작

프라이스와 동료들(Price et al., 2002)은 의견불일치를 “토론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정도”(p.100)로 규정한 바 있다. 프라이스 등(2002)은 ‘토론과정에서 의견불일치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에서 ‘토론할 때면 언제나 경험한다’ 사이에 존재하는 5점의 서열척도를 사용하여 의견불일치를 측정한다 다음, 이러한 경험의 정도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다 다음, 이들 집단간 의견의 질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개념화 방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견불일치를 ‘공적인 쟁점을 둘러싸고 토론 상대방과 다르거나 상반되는 토론 당사자의 의견이나 입장, 혹은 견해’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불일치 경험이 토론효과의 한 차원인 시민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견불일치를 경험을 최소화하거나 극대화시키는 조작을 가하여 실험집단을 두 개로 구분한 다음, 이러한 실험처치 조건에 따라 토론의 효과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

---

기 위한 분석의 유목은 토론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남긴 의견이 토론 상대방의 의견과 일치하거나 동질적인 것인지(동질적 의견 교환), 아니면 불일치하거나 이질적인 것인지(이질적 의견 교환)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개인별 토론 메시지의 내용을 의견 게시번호 순으로 나열하여 목록화하여, 그러한 의견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측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기여우대제 도입의 배경이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의견이나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진술,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러한 메시지들 가운데 기여우대제 도입의 찬반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결여된 진술문에서는 동질적·이질적 의견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진술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토론 메시지 내용에 대한 코더간 일치도 검토에는 크리펜도르프 계수(Krippendorff  $\alpha$ )가 사용되었다. 이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실험처치 조건하에서의 이루어진 토론 메시지의 10%인 100개를 무작위로 선정, 실제 코더들로 하여금 상호교차하여 코딩하게 하였으며, 코더 간 일치도는 .8023이었다.



았다. 의견불일치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처치는 우선, 사전조사에서 기여우대제 도입에 대한 실험 참여자들을 파악하여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다른 실험집단으로 분리하여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의견불일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가진 실험 참여자들을 실험처치 조건에 따라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주어진 하나의 집단 내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연구가설의 검증

##### 1) 정치토론과 시민적 태도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의 참여가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시민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후조사에서 관찰된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그런 다음, 이러한 평균을 사전조사에서 측정된 평균에서 뺀 평균 변화량이 토론에의 참여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진 ‘실험집단(A)(B)(C)’와 토론이라는 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통제집단(D)’의 평균 변화량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표 2>에서 ‘실험집단(A)(B)(C)’에 속한 실험 참여자들이 토론을 전후로 하여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평균 변화량( $M=0.08$ ,  $SD=0.64$ )은 토론이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통제집단(D)’의 평균 변화량( $M=-0.33$ ,  $SD=0.63$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 두 집단 간 평균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t=5.591$ ,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의 참여여부에 따른 대인간 신뢰의 평균 변화량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균 변화량의 차이가 토론의 효과로 단정 짓기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러한 토론에 따른 대인간 신뢰 점수가 실제로 토론에 참여한 실험집단에 속한 실험 참여자들 간에

&lt;표 2&gt; 토론참여 여부에 따른 시민적 태도의 평균 변화량 차이 검증

개념적 요소	실험처치 조건	사례수	평균 변화량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대인간 신뢰	실험집단 (A)(B)(C)	300	0.08 (0.64)	404	5.591***
	통제집단 (D)	106	-0.33 (0.63)		
호혜성	실험집단 (A)(B)(C)	302	0.52 (0.89)	407	3.722***
	통제집단 (D)	107	0.14 (1.00)		

\*\*\*  $p < 0.001$ , 양측 검증

공유된 신뢰 수준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제집단에 속한 실험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된 대인간 신뢰 수준의 감소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해볼 때, 가상공간 내 정치적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가 토론 상대방들 간에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이 사실상 지지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다음으로, ‘실험집단(A)(B)(C)’에 속한 실험 참여자들이 토론을 전후로 하여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호혜성의 평균 변화량( $M=0.52$ ,  $SD=0.89$ )은 토론이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통제집단(D)’의 평균 변화량( $M=0.14$ ,  $SD=1.00$ )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이 두 집단 간 평균 변화량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t=3.722$ ,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가상공간 내에서의 정치적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익명적이고 비대면적인 의사소통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호혜성을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연구가설 1-2]를 지지해주는 것이다.

[연구문제 1]과 그 하부가설에 대한 이러한 검증 결과는 온라인 숙의에의 참여가 숙의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의 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프라이스를 비롯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일련의 연구 결과(Price & Cappella 2002; Price et al., 2002)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토론에의 참여와 사회적(대인간) 신뢰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민적 태도의 또 다른 개념요소의 한 축인 호혜성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의견불일치 경험과 시민적 태도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조사에서 관찰된 시민적 태도에 대한 토론 참여자들의 평균에서 사전조사에서의 관찰된 평균을 뺀 평균 변화량이 의견불일치라는 조작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견불일치 조작을 가하지 않은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다음, 이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시민적 태도에 대한 평균 변화량 점수를 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변화량의 차이와 의견불일치 조작을 가한 ‘실험집단(C)’, 그리고 토론이라는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D)’의 그것의 차이를 공변량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본페로니(Bonferroni) 사후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일반적 신뢰라는 공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의견불일치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처치를 가한 ‘실험집단(C)’의 대인간 신뢰의 평균 변화량( $M=0.22$ ,  $SD=0.64$ )은 그러한 처치를 가하지 않은 ‘실험집단(A)(B)’의 평균 변화량( $M=-0.00$ ,  $SD=0.64$ )과 ‘통제집단(D)’의 평균 변화량( $M=-0.33$ ,  $SD=0.6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세 집단 간 평균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F=19.448$ ,  $df=2, 403$ ,  $p<.01$ )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변화량의 차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본페로니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C)’의 평균 변화량은 ‘실험집단(A)(B)’의 평균

&lt;표 3&gt; 의견불일치에 따른 시민적 태도의 평균 변화량 차이 검증(ANCOVA)

종속 변인	실험처치 조건	평균 변화량	표준 편차	F값
대인간 신뢰	실험집단(A)(B)	-0.00ac	0.64	19.448***
	실험집단(C)	0.22ab	0.64	
	통제집단(D)	-0.33bc	0.63	
	전 체	-0.03	0.67	
호혜성	실험집단(A)(B)	0.53b	0.93	6.909***
	실험집단(C)	0.53a	0.81	
	통제집단(D)	0.14ab	1.01	
	전 체	0.43	0.94	

\* 동일 알파벳 아래 첨자는 두 집단 간 평균 변화량의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함을 표시함.

\* 투입된 통제변인(대인간 신뢰): 일반적 신뢰<sup>2)</sup>

\* 투입된 통제변인(호혜성): 온라인 모임 수<sup>3)</sup>

\*\*\*  $p < .001$

변화량( $M = -0.00$ ,  $SD = 0.64$ )이나 ‘통제집단(D)’의 평균 변화량( $M = -0.33$ ,  $SD = 0.63$ )보다 높았으며, 이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험집단(A)(B)’의 평균 변화량의 증가 폭은 ‘통제집단(D)’의 그것에 비하여 0.33( $SD = 0.67$ ) 높았으며, 이 역시도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에서 토론 참여자들은 자신과 일치되거나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 2) ‘일반적 신뢰’는 사람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견지하고 있는 신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방법에서 소개된 기타변인의 측정에서 측정된 문항이다. 연구가설의 검증에 들어가기 이전의 사전 자료분석에서 ‘일반적 신뢰’가 실험집단 간 대인간 신뢰의 평균 변화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것이 연구가설 검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으로 삼았다.
- 3) ‘온라인 모임 수’는 사람들이 평소에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등의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고 있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도 연구방법의 기타변인의 측정에서 소개된 변수이다. 이 변인도 사전 자료분석에서 실험집단 간 호혜성에 대한 평균 변화량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 이 변인이 가설검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도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불일치되거나 상이한 의견을 가진 의사소통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한 [연구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모임 수’라는 통제변인을 투입한 다음, 정치토론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처치를 가한 ‘실험집단(C)’의 호혜성에 대한 평균 변화량( $M=0.53$ ,  $SD=0.81$ )과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처치를 가한 ‘실험집단(A)(B)’의 평균 변화량( $M=0.53$ ,  $SD=0.93$ )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두 실험집단의 평균 변화량이 토론이라는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D)’의 토론 후 평균 변화량( $M=0.14$ ,  $SD=1.01$ )보다 높았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러한 평균 변화량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F=6.909$ ,  $df=2$ ,  $406$ ,  $p<.001$ ) 것으로 나타났다. 본페로니 사후검증 결과, 토론이라는 실험처치가 가해진 두 조건하에서의 토론 후 평균 변화량은 토론이라는 처치가 가해지지 않은 ‘통제집단(D)’의 증가량보다 약  $0.37(SD=0.11)$  높았으며, 이러한 평균 변화량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기각되었다.

[연구문제 2]와 하부의 연구가설에 대한 이러한 검증결과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것임에도, 그러한 토론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이 반드시 토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러한 발견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경험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탈개인화 모델과 집단극화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항상 부적인 관련성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보다 명확한 근거로, 의견불일치 경험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호혜성의 평균 변화량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호혜성은 그들이 토론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의 여부나 정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론이나 대화라고 하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설의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결과는 의견불일치가 노골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조건에 기반한 가상공간 내 정치적 대화나 토론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격의 없는 의사소통을 촉발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주장, 혹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특정한 쟁점에 대하여 한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다른 한쪽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는 맥락 속에서, 그러한 상대방의 의견이 과도하고 무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일 경우, 오히려 토론 상대방이 견지하는 이질적인 의견이 자신의 의견이 가진 단점이나 맹점을 극복하도록 하는 단서를 제공해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호혜성의 유지나 형성, 그리고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한 기제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3)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된 시민적 태도와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후조사에서 관찰된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시민적 태도의 개념 요소에 대한 평균에서 사전조사에서 관찰된 평균을 뺀 평균 변화량과 사전, 사후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 변화량 사이의 부분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토론이라는 실험처치 조작을 가한 ‘실험집단(A)(B)(C)’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불일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조작한 ‘실험집단(A)(B)’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의견불일치를 경험하

&lt;표 4&gt; 실험처치 조건별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의향의 부분상관관계

구 분	실험집단(A)(B)(C)	실험집단(A)(B)	실험집단(C)	통제집단(D)
대인간 신뢰	.131*	.114	.208*	-.028
호혜성	.293***	.277***	.375***	.149

통계변인: 글 읽은 횟수, 글 쓴 횟수, 댓글 수, 글 쓴 양문자 수<sup>4)</sup>

\*  $p < .05$ , \*\*\*  $p < .001$

도록 조작한 ‘실험집단(C)’를 대상으로 한 부분상관관계 분석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대인간 신뢰는 ‘실험집단(A)(B)(C)’와 ‘실험집단(C)’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민참여 의향과 유의미한 관계( $r = .131$ ,  $p < .05$ ;  $r = .208$ ,  $p < .05$ )가 발견되었으나, ‘실험집단(A)(B)’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r = .114$ ,  $p = .134$ ). 이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하고 있는 대인간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시민참여 의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이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호혜성은 ‘실험집단(A)(B)(C)’, ‘실험집단(A)(B)’, 그리고 ‘실험집단(C)’ 등 모든 실험처치 조건 하에서 시민참여 의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r = .293$ ,  $p < .001$ ;  $r = .277$ ,  $p < .001$ ;  $r = .375$ ,  $p < .001$ ), 그 통계적 유의도 역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토론 상대방들과 공유한 호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의 토론주제나 이슈와 관련한 시민참여 의향도 높게 나타나며, 이는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가설 3-2]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다.

4) 여기에 제시된 통계변인들은 연구방법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토론내용에 대한 정량분석에서 사용된 분석의 유목들이다. 이들 변인들은 사전 자료분석에서 시민참여 의향에 대한 평균 변화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관계가 있는 것들로서 연구가설 검증결과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적 태도와 시민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는 가상공간에서의 특정한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에의 참여를 통하여 토론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된 시민적 태도의 수준이 그들의 시민참여 의향과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특히, 시민적 태도의 개념요소 중 호혜성은 시민참여 의향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나 그 통계적 유의성 모두에서 대인간 신뢰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정치적 쟁점이나 이슈와 관련한 사람들의 시민참여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정서적 혹은 감정적 지지를 공유함으로써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검증결과는 인터넷 가상공간을 단순히 여가나 기분 전환을 동기로 하지 않고, 공동체적 삶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만 이용한다면, 이러한 인터넷의 이용이 그 이용자들의 시민적 태도의 고양뿐만 아니라 해당 이슈와 관련한 시민참여의 수준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 가상공간의 활용이 공동체적 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기제인가, 아니면 그러한 공적인 삶으로부터 격리되도록 하는 기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인터넷 이용량보다는 이용동기와 이용 패턴을 통해서 보다 잘 규명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5.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의견의 질을 비롯한 인지적 차원에 초점을 둔 경험주의적 속의 연구관행에서 벗어나, 속의적 과정에의 참여가 사람들의 시민적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견불일치 경험과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시민적 태도가 시민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에의 참여는 토론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시민적 태도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기원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사실에 비추



어 볼 때, 이러한 검증결과는 토론공동체와 같은 결사체(연계망)에 참여하는 행위가 시민적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를 제공해주며, 이는 사회자본의 기원이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행위와 불가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결사체에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성과 자질, 그리고 태도를 고양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경험이 반드시 토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적대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반한 가상공간 내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 자신과 비슷하거나 동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감정을 견지하는 반면, 다르거나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호의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에 토대를 둔 탈개인화 모델이나 집단극화 현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어떤 사회정치적 쟁점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의 과정에서 토론 참여자들이 토론 상대방과 공유하는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의 수준은 토론 상대방이 가진 의견이나 주장이 자신과 일치하느냐 혹은 불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휴리스틱적(heuristic) 판단에 의하여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이나 입장을 뒷받침 하는 논리적 근거의 논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교하고 체계적인 정보처리 과정에 의한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을 가지도록 해준다.

셋째,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정에서 고양된 시민적 태도를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 중 대인간 신뢰는 항상 토론 참여자들의 시민참여 의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된 데 비해, 호혜성의 영향은 매우 직접적임과 동시에 강력한 것이었다. 이는 온라인 숙의와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몇몇 연구에서 발견된 정치적 참여의 선행 변인으로서 대인간 신뢰와 달리, 오히려 이들 연구관행 속에서 연결망 자본을 측정하는 데 긴요하

게 사용되어 온 호혜성 요인이 사람들의 시민참여 의향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정치적 토론과 사회자본(시민성) 사이의 관계 연구에서는 호혜성이라는 변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과 시민적 태도 사이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이버 강의실 내에서의 토론이 강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토론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동질성이 실제 가상공간 내 정치적 토론이나 대화와 다소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제안적 일반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 요소들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간 신뢰와 호혜성이라는 두 요소를 사회자본의 핵심적 개념요소로 간주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상공간 내 토론의 과정에서 의견불일치 경험이 침묵의 와선이나 다수의 횡포와 같은 사회규범적 압력을 양산함으로써 정치적 불신과 냉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에도, 실제 연구설계에는 이러한 사회규범적 압력에 따른 토론의 효과를 규명할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연구의 한계로 남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과정을 통해서 규명해볼 만한 학문적 가치가 높은 연구주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부분적 지지와 각각, 그리고 연구 결과의 제한적 일반화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 내 정치토론 과정에의 참여와 그에 따른 시민적 태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시민적 자질 혹은 태도와 같은 시민성의 한 차원이 사회정치적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정치적 토론이나 대화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확충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러한 발견은 가상공간 내 의사소통이 비록 익명적이고 비대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의사소통상의 한계가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장애물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정치적 토론이나 대화와 같은 의사소통 행위가 사람들의 시민적 태도 혹은 사회자본 형성의 기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이는

곧 이러한 정치적 대화나 토론과정에서의 참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적 태도와 자질을 고양시킴으로써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냉소와 정치적 무관심을 치유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자본으로서의 시민적 태도가 정치적 토론이라는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자본(communivative capital)으로서의 사회자본의 속성을 간파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4). 인터넷과 대중매체 이용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3호, 116~143.
- 김유경 (2001). 속의 민주주의와 가상공간내 정치토론. 『언론과 사회』, 10권 1호, 74~113.
- 김은미·김현주 (2004).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04-54).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승관 (2000). 속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제45권 1호, 162~194.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200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5). 사회자본 형성의 커뮤니케이션 기초: 대중매체 이용이 신뢰, 사회 연계망 활동 및 사회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9권 3호, 135~172.
- 이준웅·김은미·문태준 (2006). 신뢰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유형과 커뮤니케이션 품질.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호(2006-3).
- 장용호·김영주 (2004).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적 속성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적 탐색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2권 3호, 55~96.
- 한혜경 (2004).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자질과 가상공간의 속의 경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9권 4호, 604~643.

- Anderson, B., & Tracy, K. (2001). Digital living: The impact(or otherwise) of the internet on everyday lif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56~475.
- Bimber, B. (1998). The internet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Populism, community, and accelerated pluralism. *Polity*, 31, 133~16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G.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Brehm, J., & Rahn, W. M. (1997). Individual 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 Cappella, J. N. (2002). Cynicism and social trust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2(1), 229~241.
- Coleman, J. S. (1990). *Foundation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man, Robert W. & Miller, Ross A. (1988).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47~73.
- Jones, S. G. (1995).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ousand Oaks, CA: Sage.
- Kapor, M. (1993, July/August). Where is digital highway really heading? *Wired*, 94.
- Katz, J. E., & Apsden, P. (1997). A nation of strangers? *Communications of ACM*, 40, 81~86.
-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 361~385.
- Kraut, R., Mukhopadhyay, T., Szczypula, J., Kiesler, S., & Scherlis, W. (1998).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lternative uses of the internet in households* (In Proceedings of the CHI 98). New York: ACM.
- Lee, Eun-Ju. (2006a). When and how does depersonalization increase conformity to group norm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2006 ICA annual meeting, Dresden, Germany.
- Lee, Eun-Ju. (2006b). Deindividuation effects on group polariz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group identification, public self-awareness and perceived argument quality. Paper presented at 2006 ICA

annual meeting, Dresden, Germany.

- McLeod, J. M., Scheufele, D. A., & Moy, P. (1999). Community,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The rol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discussion in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6(3), 315~336.
-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 Nie, N. H., & Erbring, L.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Stanford, CA: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
- Nie, N. H., & Sackman, H. (1970). *The information utility and social choice*. Montvale, NJ: AFIPS.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54~277.
- Postumes, T., Spears, R., & Lea, M. (1998). Breaching or building social boundaries? SIDE-effects of CMC. *Communication Research*, 25, 689~716.
- Price, V. & Cappella, J. N. (2002, summer). Online deliberation and its influence: The electronic dialogue project in campaign 2000. *IT & SOCIETY*, 1(1), 303~329.
- Price, V., Cappella, J., & Nir, L. (2002). Does disagreement contribute to more deliberative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19(1), 95~112.
- Price, V., Goldthwaitem D., & Cappella, J. N. (2002). Online deliberation, civic engagement, and social trust. Paper submitted for presentation to the annual meet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Seoul, Korea, July 2002.
- Putnam, R. D. (1995a).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7(4), 664~683.
- Putnam, R. D. (1995b).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Schwartz, E. (1996). *Net activism: How citizens use the internet*. Sebastopol, CA: Songline Studies.
- Shah, D. V., Kwak, N., & Holbert, L. R.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 141~162.

- Sproull, L. S. & Kiesler, S. B.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Stroll, C. (1995). *Silicon snake oil: Second thoughts on the information highway*. New York: Doubleday.
- Sunstein, C. R. (2000). *Republic.c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stein, C. R. (2002a). On a danger of deliberative democracy. *Deadalus*, 131, 120~124.
- Sunstein, C. R. (2002b). Why they hate us: The role of social dynamics. *Harvard Journal of Law & Policy*, 25, 429~440.
- Tarrow, S. (1999). Fishnet, internets and catnets: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llective action. In Hanagan, M., Moch, L., & TeBrake, W. (Eds.), *The past and future of collective ac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Turkle, S. (1998). Social capital, television, and the mean world: Trust, optimism, and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3), 441~467.
- Uslaner, E. M. (2000). Social capital and the Net. *Communication of the ACM*, 43(12), 60~64.
-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3), 436~445.
- Wood, A. F. & Smith, M. J. (2001). *Online communication: Linking, technology, identity, & Culture*. IEA: London.
- Wyatt, R. O., Katz, E., & Kim, J. (2000). Bridging the spheres: Political and personal conversation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71~92.
- Wyatt, R. O., Kim, J., & Katz, E. (2000). How felling free to talk affects ordinary political conversation, purposeful argument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J&MC Quarterly*, 771, 99~114.

## Political Discussion and the Civic Attitude in Cyberspace: Focusing on Interpersonal Trust and Reciprocity as the Conceptual Constructs of Social Capital

Dong-Yoon Kim

Senior Researcher

Communication Institute, Yonsei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ied how political online discussion participation and experiencing opinion disagreement during the discussion affect on civic attitudes(interpersonal trust and reciprocity) and civic participation through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experimental treatment. For results, first of all, online political discussion positively affects on civic attitude of participants, but it's effect was partial. Next, experiencing opinion disagreement can help to have rather improving civic attitude than reducing civic attitude. Finally, civic attitude consists of interpersonal trust and reciprocity acquired from online discussion also partially and positively a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which is more affected by reciprocity than interpersonal trust. Regard to these effect of online discussion, civic attitude can be extended by participating political communication(discussion), and participating communicative associations lead to encourage civic attitude of them and function to reinforce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ties.

Key words: political discussion, social capital, civic attitude, opinion disagreement, interpersonal trust, reciprocity, civic participation